

AUTHOR 김종희

TITLE 경험의 예장론

IN 기독신학지 제

Vol.27 No.- (2002), 159-184.

칼빈의 예정론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김종희
(교회사)

1. 서론
2. 예정의 궁극적 원인: 하나님의 의지
3. 선택의 근거: 그리스도
4. 예정의 표장: 성령의 효과적 사역
5. 결론

◆ Abstract ◆

On the hypothesis that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is the Trinity-centered one, neither God-centered one, nor Christ-centered one, nor Holy Spirit-centered one, we examined it, and we can arrive at the result as following. The ultimate cause of predestination is the will of God, the basis of election is Christ, and the sign of predestination is related with the work of Holy Spirit, being with the elect, and not being with the reprobate. Therefore we may say that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is Trinitarian one, and this means that the works of the Trinity in the decree and the execution of predestination, which are distinguished without division among the works of the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are emphasized.

1. 서론

칼빈의 예정론 연구가들은 칼빈의 신학에서 차지하는 그 교리의 위치와 그 성격에 주목해 왔다. 칼빈의 예정론이 그의 신학에서 중심적인 교리라고 주장한 학자들 선두에 슈바이짜(Alexander Schweizer)와 바우어(F. C. Baur)가 서 있는데, 그들은 예정이 칼빈의 신학에서 중심적이고 그의 모든 가르침이 예정에서 비롯된다고 했다.¹⁾ 이 관점에 반대하여 리츨(Otto Ritschl)은 예정론이 칼빈의 구속론에 매우 중요한 부록이지만 칼빈의 체계를 지배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²⁾ 예

1) Alexander Schweizer, *Die Glaubenslehre der evangelisch-reformierten Kirche*, 2 vols.(Zurich, 1844-15)와 *Die Protestantischen Centraldogmen in ihrer Entwicklung innerhalb der Reformierten Kirche*, I (Zurich: Orell, Fuessli, 1854), 57. ; F. C. Baur, *Lehrbuch der christlichen Dogmengeschichte*, 3rd ed.(Stuttgart, 1867). 같은 방법으로 오토 리츨은 “예정사상이 그리스도교 교의학의 다른 교리들에 대한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믿으며, 칼빈이 그의 체계에서 논리적으로 적합한 장소에 예정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비난까지 하였다. Otto Ritschl, *Dogmengeschicht des Protestantismus*, II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26), 156-198. 이들과 같은 대열에 있는 저서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vol. IV (Lausanne, 1899-1917; Neuilly: 1926-7), 351-416; Louis Goumaz, *La Doctrine du salut d'après les commentaires de Jean Calvin sur le Nouveau Testament* (Nyon, 1917), 261-72; R. Seeberg, *Lehrbuch der Dogmengeschichte*, vol. IV, 3rd ed. (1923), 578 ff.; A. Lecerf, *Le Déterminisme et la responsabilité dans le système de Calvin* (Paris, 1895), 49 ff., 108 ff.; M Scheibe, *Calvins Praedestinationslehre* (Halle, 1897); E. Emmen, *De Christologie von Calvijn* (Amsterdam, 1935), 67-83; A. D. R. Polman, *De Praedestinatieleer van Augustinus, Thomas von Aquino en Calvijn* (Franeker, 1936), 307-92; “De l'élection éternelle de Dieu”, in the *Actes du Congrès internationale de Théologie Calviniste* (Geneva, 1936); P. Jacobs, *Prädestination und Verantwortlichkeit bei Calvin* (Neukirchen, 1937); G. Deluz, *Prédestination et liberté* (Neuchâtel, 1942), 49-61, quoted in F.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Philip Mairet (London: Collins, 1973), 263-264; C. Partee, *Calvin and Classical Philosophy* (Leiden, 1977), 134, n. 43.

2) Albrecht Ritschl, “Geschichtliche Studien zur Christlichen Lehre von Gott,” *Jahrbücher für Deutsche Theologie* (1868), 108, quoted in Partee, 134. 오텐도 “예정을 다름에 있어서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과 유일한 효능 개념에서부터 은혜로운 선택을

정론이 중심교리라는 주장은 그 교리가 신론적이고 다른 교리들을 도출해내는 원리라는 입장이고, 그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은 그 교리가 구원론적이고 다른 교리들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쟁점은 칼빈의 예정론이 신론적인가 구원론적인가에 귀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논점은 칼빈 신학의 중심적 교리를 찾기 위한 논쟁과도 연관되는데, 칼빈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적인지,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혹은 성령중심적인지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 입장은 트뢸치(E. Troeltsch)에게서,³⁾ 두 번째 입장은 니젤(W. Niesel)에게서⁴⁾, 세 번째 입장은 워필드(B. Warfield)에게서⁵⁾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칼빈 신학의 한 면만을 강조했다고 옳게 비판하는 이양호 교수가 그들의 입장을 종합하였다.⁶⁾ 그는 칼빈의 삼위일체(론)적 신학을 잘

구성하려고 신론에서 출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정은 그에게 구속의 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Heinz Otten, *Calvins Theologische Anschauung von der Prädestination* (Munich: Chr. Kaiser Verlag, 1938), 87, quoted in Partee, 135. 마찬가지로 방헬도, 칼빈이 이중예정론을 가르쳤고 그것의 교리적이고 경험적인 관심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정론이 그의 가르침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Wendel, CALVIN, 264.

3) 트뢸치는 칼빈의 예정에 대한 관념에서 “절대적 주권의 의지로서의 하나님의 특성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으며”, 칼빈에게 있어서 “중심적인 점은 피조물의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 구원이나 신적인 의지의 보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다. 그는 칼빈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 하나님 중심적 신학자로 보았던 것이다. Ernst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 Olive Wyon (2vol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31), vol. II, 581-583, quoted in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48-49.

4) W. Niesel, 「칼빈의 神學」(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5) Benjamin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ed. Samuel G. Craig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1).

6)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52. “...지금까지의 칼빈 연구가들이 지난 결점이 드러난다. 칼빈 신학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동인을 칼빈 신학의 전체인 양 오해한 것이다. 반면에 니젤은 질료인을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로 과장한 것이다. 워필드는 칼빈의 형상인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를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렀다. 이들은 각각 칼빈 신학의 한 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 셋을 동시에 강

드러내는 「기독교 강요」를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의 관계를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으로 나타내었다.⁷⁾

칼빈의 예정론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눈구될 때 그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의 예정론을 신론적으로 파악하며 그의 중심교리라고 본 입장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았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혹은 성령 중심적으로 봄으로써, 서로 대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니젤이 칼빈의 예정론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서술한 것처럼, 멀리도 칼빈의 예정론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구원론적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이 특색이 등장하는 개혁 정통주의에서 계속된다고 생각한다.⁸⁾ 크루舍(W. Krusche)는 칼빈의 예정론이 「기독론과 성령론의 결론」이라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서 예정론의 위치를 볼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나 성령 중심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조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 자료를 담아 전달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7) Ibid. “칼빈 신학의 중심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며, 이 둘은 주변적인 것과 중심적인 것의 관계에 있다 …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구속주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이중적 인식에 대한 칼빈의 주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독교 강요」 여러 곳에 나타나 있으며, 「기독교 강요」의 제 1권과 제 2권의 제목에도 잘 나타나 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 칼빈에게 있어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두 주제의 각각에 대해 칼빈이 할애한 지면의 분량과 관심을 보아 잘 나타난다. “칼빈의 사상이 모든 신학을 지배하는 구원론적 중심을 가지고 있다”(E. A. Dowey, “The Structure of Calvin's Thought as Influenced by the Twofold Knowledge of God,” *Calvinus Ecclesiae Genevensis Custos*, ed. by Wilhelm H. Neuser [Frankfurt am Main, 1984], 137)는 다우위의 말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8) R. Muller, *Predestination and Christology in Sixteenth-century Reformed Theology*(1976), 211f.; *Christ and the Decree Christology and Predestination in Reformed Theology from Calvin to Perkins* (Durham, 1986).

9) W.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7), 14, quoted in Partee, 135.

구원론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⁰⁾ 즉,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있어서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며,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준 분은 그리스도며, 오래 전에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자료를 마련한 그리스도의 공적이 우리 개개인에게 전달되도록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여 그 공적을 받아들이게 하는 분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예정과 추진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공적을 쌓았더라도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공적은 우리와는 무관한 공적이 될 것이다.”¹¹⁾ 이러한 삼위일체(론)적 관점에서 칼빈의 예정론을 그의 저술을 통하여 논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10) 일부 칼빈 연구가들은 칼빈 신학의 구조를 찾아내기 위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분석하였다. 대체로 사도신경에 따라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장과 주님에 대한 이중적 지식에 따라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는 제네바에서 최초로 칼빈 전집을 출판한 편집자들(*Iohannis Calvini Opera Omnia Theologica in Septem Tomos Digesta*(Genevae: Apud Iohannem Vignon, Petrum & Iacobum Chouet, M. DC. XVII), Sig. **4a, quoted in T. H. L. Parker,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9), 8)의 뒤를 이어 피커가 주장했다(Parker, *Calvin's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후자의 경우는 코스틀린(J. Köstlin, “Calvins Institutio nach Form und Inhalt, in ihr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Theologische Studien und Kritiken*[1868], 6-62, 410-486)과 그의 입장을 더욱 발전시킨 다우이(Edward A. Dowey, Jr.,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4])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입장은 비교해 보면, 「기독교 강요」 최종판은 네 권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1권)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2-4권)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이 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57. 참조). 따라서 칼빈이 예정론을 3권 21-24장에 배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교리가 구속주 하나님의 사역에 속하고 구속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칼빈의 예정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구원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11)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53. Cf. Inst., III, 14, 17; 14, 21; Comm. Ephesians 1:3-5.

2. 예정의 궁극적 원인: 하나님의 의지

예정에 관한 칼빈의 정의는 153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여기에서 로마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반영하는 구원론적 문맥에서 이 교리를 전개하였는데, 예정을 이중예정¹²⁾으로 정의한다.¹³⁾ 칼빈의 예정론이 갖는 이중적 성격이 예정의 대상인 인간

12) 이중예정과 대비되는 개념은 단일예정이며, 칼빈의 논적이었던 볼셰에게서 볼 수 있다. 볼셰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에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볼셰의 대답은 주로 23 “Articles propres,” 중 아홉 번째에 있는데, 그 안에서 그는 제네바 교리문답(Genevan Catechism)에 호소했다(John Calv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and E. Reuss, 59vols. [Brunsvigae, 1863-1900; abbreviated to CO; 8, 179; Registres, 105]) 그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같은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하셨다고 주장하며, 진행중인 역사 속에 있는 죄와 온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Holtrop, 62. Registrs, 92; CO 8, 161).

13)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이 목적들 중의 어느 한 쪽에 이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는 그가 생명 또는 사망에 예정되었다고 한다.”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559 edition) trans. Ford Lewis Battles. 2vol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vols. XX-XXI (abbreviated to Inst.), III, 21, 5 [John Calvin,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 P. Barth and W. Niesel. 5vols [Monachii, 1926-1936; abbreviated to OS], 4, 374): “Praedestinacionem vocamus aeternum Dei decretum, quo apud se constitutum habuit quid de unoquoque homine fieri vellet. Non enim pari conditione creantur omnes: sed aliis vita aeterna, aliis damnatio aeterna praecordinatur. Itaque prout in alterutrum finem quisque conditus est, ita vel ad vitam vel ad mortem praedestinatum dicimus.” 이 간단한 정의는 곧 이어 다소 정교하게 나타난다.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전에 구원으로 받아들이기로 단번에 결정하신 자들과 멸망으로 내어주실 자들을 영원하고 변할 수 없는 계획에 의해 정하셨다고 말한다. 선택된 자들에 관하여 이 계획은 인간의 가치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무상의 자비에 근거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공의롭고 흠이 없지만 불가해한 판단으로 그가 저주에 넘겨준 자들에게 생명의 문을 닫으셨다. 그런데 선택된 자들 사이에서 부르심을 선택의 증거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의 성취가 있는 영광으로 들어갈 때까지, 청의가 선택을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심과 청의에 의해 선택받은 자

의 측면에서 볼 때 드러나는 것인 반면, 예정의 주체인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삼위일체(론)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칼빈의 예정론은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으로 분리는 되지 않지만 구별은 되어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정의가 나타나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계속하여 예정의 원인을 하나님의 의지로, 무상의 선택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으로, 그리고 선택과 유기의 표징을 성령의 동반과 비동반으로 상술하고 있다.

칼빈에게 하나님의 의지¹⁴⁾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논작들이 하나님의 예지의 우위성을 주장할 때 하나님의 의지의 우위성을 주장했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칼빈은 공로에 관한 예지사상을 반대한다. 그의 반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공로를 예견하시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고 생각한

들을 인치시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이 그의 이름에 관한 지식이나 혹은 그의 성령의 성화로부터 차단하심으로써, 말하자면 이러한 표시들에 의해 어떤 종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시하신다.” Inst., III, 21, 7 (OS, 4, 378.): “Quod ergo Scriptura clare ostendit, dicimus aeterno et immutabili consilio Deum semel constituisse quos olim semel assumere vellet in salutem, quos rersum exitio devovere; hoc consilium quoad electos in gratuita eius misericordia fundatum esse asserimus, nullo humanae dignitatis respectu; quos vero damnationi addicit, his iusto quidem et irreprehensibili, sed incomprehensibili ipsis iudicio, vitae aditum praecludi. Iam vero in electis vocationem statuimus, electionis testimonium. Iustificationem deinde, alterum eius manifestandae symbolum, donec ad gloriam in qua eius complementum extat pervenitur. Quernadmodum autem vocatione et iustificatione electos suos Dominus signat, ita reprobos vel a notitia sui nominis, vel a Spiritus sui sanctificatione excludendo, quale maneat eos iudicium istis veluti notis aperit.”

14) 칼빈의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결정’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5) Inst., III, 23, 4 (OS 4, 397): “redeundum tandem semper esse ad solum divinae voluntatis arbitrium” Inst., III, 23, 2 (OS 4, 396). Cf. *Calumniae nebulonis cuiusdam de occulta providentia Dei*, reply to art. I (CR IX. 288 f.; tr. H. Cole, *Calvin's Calvinism* [1856], 266f.).

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없지 않다고 예지하시는 사람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악한 의도와 불경건으로 기울어질 성향을 가지리라고 보시는 사람들을 죽음의 저주를 반드시 정하신다고 한다.”¹⁶⁾ 칼빈에게 이것은 예정론을 뒤엎으려는 위협이다. 왜냐하면 공로를 예지하신 것을 기초로 예정하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보다는 인간의 공로가 우선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이 아퀴나스에게 있음을 칼빈은 간파한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들은 자주 궤변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님은 선행하는 공로에 선택의 은총을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로에 선택의 은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만,¹⁷⁾ 이러한 궤변은 정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할 때, 동시에 그들에게 있을 거룩은 선택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암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에서 유래한 것이 선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¹⁸⁾ 또한 칼빈은 다른 곳에서 아퀴나스를 인용하면서 비판한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한다. ”공로에 대한 예지는 예정하는 이의 입장에서는 예정의 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공로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로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예정하셨다고 말할 때처럼, 예정에 대한 특별한 평가에 의해서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¹⁹⁾ 그러나 칼빈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것은 은

16) Inst., III, 22, 1 (OS 4, 379).

17) Cf. sec. 22, 9, n. 21; Aquinas, *Summa Theol.* I, 23, 5(<사람이> 공로로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주시기로 예정하신다) (tr. LCC XI. 110); Clichtove, *Improbatio*, fo. 8b, quoted in Inst., III, 22, 3. n. 8.

18) Inst., III, 22, 3 (OS 4, 382).

19) T. Aquinas, *Commentary on the Sentences* I, xli. 1, art. 3; *Summa Theol.* I, xxiii. 5; cf. sec. 3, quoted in Inst., III, 22, 9 (OS 4, 389-390): “praescientiam meritorum non ex parte quidem actus praedestinantis esse praedestinationis causam: ex parte autem nostra, quodammodo sic vocari posse, nempe secundum particularēm

총에 이르도록 예정되는 것의 원인이고,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²⁰⁾고 함으로써 아퀴나스를 반박한다.

칼빈에게 “선택받음으로 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과, 행위 때문에 선택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은 서로 일치할 수 없다.”²¹⁾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리란 것을 예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순서를 뒤집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예전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²²⁾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의 공로는 대조된다.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선택되어 유기된 에서와 구별되었지만, 공로에서 는 에서와 다르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자비를 배풀 것이며 측은히 여길 자를 측은히 여기라라”고 하신 것(롬 9:15)이 그 이유이다.”²³⁾ 유기도 공로를 근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며,²⁴⁾ 유기와 대조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선택에 대하여 우연히 또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짓이다.²⁵⁾ 그리고 칼빈은 로마서 9장을 주석하면서, 이 주목

praedestinationis aestimationem; ut quoniam dicitur Deus praestinare homini gloriam ex meritis, quia gratiam ei largiri decrevit qua gloriam mereatur.”

20) Inst., III, 22, 9 (OS 4, 390): “praedestinationem gloriae causam potius esse praedestinationis gratiae, quam e converso”

21) Inst., III, 22, 3 (OS 4, 382): “Pugnant enim inter se haec duo, haberepios ab electione ut sancti sint, et ad eam ratione operum pervenire.”

22) Inst., III, 22, 3 (OS 4, 382).

23) Inst., III, 22, 6. (OS 4, 385).

24) Inst., III, 22, 11 (OS 4, 393).

25) Inst., III, 23, 1 (OS 4, 391-392): “Haec vero dum audit humanum ingenium, contineri nequit eius protervia quin velut ad canticum classici, varie et supra modum tumultuetur. Ac multi quidem, acsi invidiam a Deo repellere vellent, electionem ita fatentur ut negent quenquam reprobari;”. 루터파의 전해를 염두에 두고 하

할 만한 구절이 모든 논쟁의 결말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은 애서와 악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이 선하거나 악하기 이전에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²⁶⁾

칼빈은 다른 곳에서도 선행이 선택의 원인이라는 입장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²⁷⁾ 즉, 하나님은 창세 전에 결정하셨는데, 그 때 선택받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선행도 행할 수 없었으며, 선택 그 자체가 선행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또한 악곱의 신앙과 선행에 관해 예지했다는 주장을 거부한다.²⁸⁾ 이것은 바울의 견해에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은 악곱과 애서가 태어나기 전에 혹은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악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선행에 관한 고려가 없다고, 바울은 결론 내린다. 이 교리에 반대하는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선의 흔적에 의해 유기된 자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문제가 윤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미래의 경향에 의존한다고 이해한다.²⁹⁾ 그러나 칼빈은 바울과 함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무가치하고 모든 사람의 본성은 부폐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운 목적 안에서 선택하는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지, 순종하는 아들들이 될

는 말이다. 후에 *Formula of Concord*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Epitome XI*의 3, 4에서는, 예지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선택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미친다고 한다 (*Concordia Triglotta*, 832f.) Cf. Melanchthon, *Loci theologici*(1543) (CR Melanchthon XXI, 915f.), quoted in Inst., III, 23, 1. n. 1.

26)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rans. J. K. S. Reid (London: James Clarke & Co. Ltd, 1961), 76, 79, 8 (CO 8, 276-277, 279).

27) Inst. III, 22, 3-4 (OS 4, 382ff.)

28) 피기우스는 하나님이 악곱의 신앙과 순종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고 한다.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79 (CO 8, 279).

29)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81 (CO 8, 280).

것이라고 예견하신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다.³⁰⁾

칼빈은 하나님의 의지가 편파적이라는 반론에 부딪친다. 그의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인격(person)을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 각처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게다가 그들은 “또 성경 자체에 모순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의 선택에는 공로에 대한 고려가 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결론을 내린다.”³¹⁾ 이에 대해 칼빈은 인격(person)과 사람(man)을 구별하면서 이렇게 대답한다. “인격이란 단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인데, 특히 눈에 띄는 것으로서, 관례적으로 호감, 은총, 존엄을 일으키거나, 또는 미움, 경멸, 차욕을 자극하는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은 재물, 부, 권력, 고결함, 직무, 국가, 육체적인 미 등이다.”³²⁾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주님은 인격들에 대하여 편견을 보이지 않으신다”고 가르친다(행 10:34; 롬 2:11; 갈 2:6 참조). 왜냐하면 주님은 단지 민족을 근거로 한 쪽을 거부하고 다른 쪽을 받아들이실 정도로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을 구별하시지 않기 때문이다(갈 3:28).³³⁾ 아고보도 하나님의 판단에는 재산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을 선언할 때에, 같은 단어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심에 있어서 자유의 상태나 노예의 상태를 고려하시지 않는다고 한다(골 3:25; 앱 6:9). 따라서 하나님은 공로를 전연 고려하시지 않고 다만 자신이 선하게 기뻐하시는 의지대로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들을 자녀들로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시며 정죄하신다고

30) Ibid. (CO 8, 280): “omnes ex aequo esse indignos, aequam naturae in omnibus esse corruptionem, secure inde constituit, Deum gratuito suo proposito eligere quoscunque eligit: non quos obsequentes fore sibi filios praevideat.”

31) Inst., III, 23, 10 (OS 4, 403-404).

32) Ibid. (OS 4, 404): “siquidem Personae vocabulo non hominem significat, sed quae in homine oculis conspicua, vel favorem, gratiam, dignitatem conciliare, vel odium, contemptum, dedecus conflare solent. Qualia sunt divitiae, opes, potentia, nobilitas, magistratus, patria, formae elegantia, et caetera eiusmodi.”

33) Ibid.

우리가 말할 때에, 아무도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³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거부하신다는 사실은 사람만을 고려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게 나타나는 것이다.³⁵⁾

또한 칼빈은 예정론이 편파적이라는 비난에 대하여 어거스틴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대답한다.³⁶⁾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불가해한 은총과 그의 값없는 자비에 근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는 칼빈에게 이 교리는 불확실성과 혼돈의 원천이 아니라 위로의 원천이다.³⁷⁾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유기에서는 공의가 나타난다.³⁸⁾ 선택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느 모로 보든지 자비만 나타나고,³⁹⁾ “선택된 사람들에 관해서 이 계획은 그들의 인간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값없이 배포시는 자비를 근거로 한 것이다.”⁴⁰⁾ 하나님께서는 벼랑받은 자들에게 공정하시다. 그래서 만일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일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을 사망에 예정하셨느냐?”⁴¹⁾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대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분

34) Ibid.

35) Augustine, *Against Two Letters of the Pelagians* II. vii. 13-16 (MPL 44. 579-583; tr. NPNF V. 397-399), quoted in Inst., III, 23, 10 (OS 4, 404).

36) Augustine, Let clxxxvi. 7.22; 6.18(MPL 33.824, 823; tr. FC 30.206; 204), quoted in Inst., III, 23, 11 (OS 4, 405). Pseudo-Augustine, *On Predestination and Grace* iii. 3(MPL 45.1667f.); Augustine, *On the Gift of Perseverance* xii. 28(MPL 45.1009; tr. NPNF V. 536), quoted in Inst., III, 23, 11 (OS 4, 405).

37) Ibid., 96-97.

38) Inst., III, 23, 11 (OS 4, 405).

39) Inst., III, 24, 1 (OS 4, 411): “Ad electionem autem dum venitur, sola illic misericordia undecunque appetit.”

40) Inst., III, 21, 7 (OS 4, 378).

41) Augustine, *Unfinished Treatise Against Julian I.* xlvi; II. viii (MPL 45.1069f., 1145), quoted in Inst., III, 23, 3.

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빚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우리는 모두가 죄로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께는 극히 가중할 뿐인데, 이것은 폭군적인 잔인성 때문이 아니라, 공의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하게 평가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⁴²⁾

3. 선택의 근거: 그리스도

칼빈은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중보자와 선택자로 묘사한다.⁴³⁾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 문제는 비교적 자세히 다루지만, 선택자로서의 그리스도에 관한 언급은 하면서도 그것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집단적 선택이 아니라 개별적 선택으로서, 그리스도의 자체로의 선택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르트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대조된다.⁴⁴⁾

칼빈의 예정론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이 개인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신 후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체가 되도록 정하셨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정하신 자들을 그

42) Inst., III, 23, 3 (OS 4, 396).

43) Inst., III, 22, 7 (OS 4, 387).

44) 바르트의 선택론에서 진정한 선택과 유기의 대상은 그리스도이다. 즉,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선택자이며 유기의 대상이며,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선택의 대상이다. 그리고 개인들의 경우에 유기는 없고 선택만 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개별자들은 인간 그리스도가 선택된 후에 그 안에서 집단적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선택된 전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택과 구원이 일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만, 구원은 이 선택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온 종의 불가항력성은 지지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리한다. 선택의 확고성은 그 활동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확보되지 못한다.

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몸에 접붙이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칼빈이 말한 다음 구절에서 발견될 수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서 선택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찾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눈을 돌려, 생명의 교제에 받아들이고자 하신 자들을 그 몸에서 지체들로 선택하셨다.”⁴⁵⁾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 전부터 정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시기로 예정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계 21:27 참조)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거가 된다.”⁴⁶⁾ “선택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수중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썩은 지체들로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선택이 효과적이고 참으로 영속적이기 위해서는 머리로 올라 가야 하는데, 그 머리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며 풀 수 없는 끈으로 그들을 자신에게 결합시키셨다. 그래서 참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거부하신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총이 아브라함의 민족을 선택하신 것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들 안에서는 훨씬 더 뛰어난 은총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머리에 접붙임을 받아 결코 구원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이다.”⁴⁷⁾

45) Inst., III, 22, 1 (OS 4, 381): “quoniam in universo Adae semine nihil electione sua dignum reperiebat caelestis Pater, in Christum suum oculos convertisse: ut tanquam ex eius corpore membra eligeret quos in vitae consortium sumpturus erat.”

46) Inst., III, 24, 5 (OS 4, 415-416): “Quum enim is sit cuius corpori inserere destinavit Pater quos ab aeterno voluit esse suos, ut pro filiis habeat quotquot inter eius membra recognoscit, satis perspicuum firmumque testimonium habemus, nos in libro vitae scriptos esse si cum Christo communicamus.”

47) Inst., III, 21, 7 (OS 4, 377): “nam etsi adoptio in manu Abrahae fuit deposita, quia tamen multi ex posteris quasi putrida membra resecti sunt: ut efficax

또한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선택의 대상인 인간 속에 선택의 어떠한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⁸⁾ 칼빈은 앱 1:4을 주석하면서 “창세 전에” 선택되었다고(엡 1:4) 밀함으로써 가치에 대한 고려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직 존재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후에 아담 안에서 동등한 인간들이 될 사람들을 서로 구별할 조건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다면, 각 사람이 그 자신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분리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자체인 것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⁴⁹⁾ 따라서 칼빈은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하며 인정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⁵⁰⁾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들 안에서는 그렇게 위대한 턱월성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그 영원한 상속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⁵¹⁾

선택에 인간의 공로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호로 견인⁵²⁾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et vere stabilis sit electio, necesse est ascendere ad caput in quo electos suos caelestis Pater inter se colligavit, et sibi insolubili nexu devinxit. Ita in adoptione generis Abrahae enituit quidem liberalis Dei favor, quem alii negavit; in Christi tamen membris longe praestantior eminet vis gratiae: quia capiti suo insiti nunquam a salute excidunt.”

48) 그러나 유기에 대해서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근인(직접적 원인)이 작용한다.

49) Inst., III, 22, 2 (OS 4, 381): “Electos fuisse dicens ante creatum mundum, omnem dignitatis respectum tollit. Quae enim discriminis ratio inter eos qui nondum erant, et qui deinde in Adam pares futuri erant? Iam si electi in Christo, sequitur non modo unumquenque extra se, sed etiam alios ab aliis segregatos; quando vide-mus non omnes esse Christi membra.”

50) Inst., III, 24, 5 (OS 4, 415).

51) Inst., III, 22, 1 (OS 4, 381): “Valeat igitur apud fideles haec ratio, ideo nos in Christo fuisse in caelestem haereditatem adoptatos, quia in nobis ipsis non eramus tantae excellentiae capaces.”

52) “Perseverantia” 은 종 안에서의 견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술은 어거스틴의 *On the Gift of Perseverance*다. 이 저서는 「기독교 강요」에 자주 인용되었다(MPL)

사상은 반론에 부딪치는데, 피가우스의 반대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피가우스는 “보아는 물을 뿐만 세례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 중생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목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 산다고 추리하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를 배반한다고 한다.”⁵³⁾ 이에 대해 칼빈은 피가우스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되고 그의 신실한 보호를 받게 된 자들은 그에 의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그들의 구원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한다는 방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배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진실로 접붙여진 어떤 사람들이 상실된다는 피가우스의 반대 주장은 단지 불경에 지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자들의 충분한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요 17:2; 10:28)”⁵⁴⁾ 이라고 함으로써, 피가우스의 주장을 물리친다. 칼빈은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는 한 번 자신의 몸에 접붙이신 자들은 아무도 멸망하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요 10:28). 왜냐하면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이 그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 즉 “모든 것보다 더 큰”(요 10:29)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⁵⁵⁾이라고 강조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또한 선택의 확실성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보아야 하는 거울이며, 자기 기만 없이 볼 수 있는 거울”이며,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되기를 영원부터 원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기로 예정 하셔서, 그리스도의 자체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모두 그의 자녀들이

45.993-1033; tr. NPNF V. 523-552).

53)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29 (CO 8, 320).

54) Ibid.

55) Inst., III, 22, 7 (OS 4, 387-388).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교하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계 21:27 참조)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거를 갖게 되기”⁵⁶⁾ 때문이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어거스틴을 의지하여 말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를 그가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는 또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값 없는 선한 기쁨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분은 우리 자신의 값 없고 자비로운 선택의 가장 명확한 거울이다.”⁵⁷⁾

그리스도가 선택의 거울이라는 말은 또한 그리스도가 선택의 계시 자라는 의미이다.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속자들로 간주되는 것 이상의 무엇을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초월 해야 한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면, 얼마나 어리석게 그의 안에서 이미 얻은 것 그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을 그의 밖에서 찾으려 하는 것인가?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원한 지혜이며, 그의 불변의 진리이며, 그의 견고한 계획이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아버지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를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의 처음부터 영원까지를 우리에게 충실히 계시해 주신다.”⁵⁸⁾

56) Inst., III, 24, 5 (OS 4, 415-416): “Quod si in eo sumus electi, non in nobis reperiemus electionis nostrae certitudinem: ac ne in Deo quidem Patre, si nudum illum absque Filio imaginamur. Christus ergo speculum est in quo electionem nostram contemplari convenit, et sine fraude licet. Quum enim is sit cuius corpori inserere destinavit Pater quos ab aeterno voluit esse suos, ut pro filiis habeat quotquot inter eius membra recognoscit, satis perspicuum firmumque testimonium habemus, nos in libro vitae scriptos esse si cum Christo communicamus.”

57)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12 (CO 8, 306). 칼빈은 여기에서 어거스틴의 *De dono perseverantiae*, c. 12, c. 24를 인용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의 특별한 백성 중에 속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길 원하시기”⁵⁹⁾ 때문에 선택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깊이 들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과 대립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의 깊이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압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잠 25:2-6).”⁶⁰⁾

4. 예정의 표징: 성령의 효과적 사역

선택의 표징인 부르심, 즉 로마서 8장 30절에 언급된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뿐 아니라 성령의 조명도 그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⁶¹⁾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안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외면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지성을 비추며 의를 사랑하며 험양하는 방

58) Inst., III, 24, 5 (OS 4, 416): “Ille (inquam) nobis testis fuit, filiorum loco habitum iri a Patre caelesti omnes a quibus fide receptus fuerit. Siquid plus appetimus quam ut inter Dei filios censemur et haeredes, supra Christum descendamus licet. Si haec suprema nobis est meta, quantopere insanimus, extra ipsum querendo quod et in ipso iam consequuti sumus, et in solo ipso inveniri potest? Praeterea quam sit aeterna Patris sapientia, immutabilis veritas, fixum consilium, non est timeendum ne quod suo sermone nobis enarrat, ab illa quam quaerimus Patris voluntate vel minimum variet: quin potius eam fideliter nobis aperit qualis ab initio fuit, ac semper futura est.”

59)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27 (CO 8, 319). “Videmus, ut a se ipso incipiat Deus, quem nos eligere dignatur: sed nos a Christo incipere velit, ut nos sciamus in sacro illo peculio conseri.”

60) Inst.(1536), 60 (CO 1, 74): “Qui vero Christo non contenti, nituntur altius penetrare, iram Dei adversum se provocant, et quia in abyssum maiestatis eius irrumunt, nihil possunt quam opprimi a gloria (Prov. 25).”

61) Inst., III, 24, 2 (OS 4, 412).

향으로 그들의 마음을 개조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다.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혁신을 원하며 구하며 달성하도록 분발시키신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경륜의 방법에 의한 자기의 손의 움직임을 나타내신다.”⁶²⁾ 이처럼 부르심은 그 방법으로 볼 때, 이중적이다. 즉 “부르심은 말씀의 선포일 뿐 아니라, 또한 성령에 의한 조명인 것이다.”⁶³⁾

개별적 부르심은 신앙이라는 용어로도 설명된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원인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려야 한다.⁶⁴⁾ 볼섹에 의하면, 신앙이 선택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선택은 신앙에 근거한다.⁶⁵⁾ 그러나 칼빈은 이에 반하여, 신앙은 선택의 결과이며, 선택은 신앙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만 선택이 효력을 나타내며, 여기서부터 그 타당성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⁶⁶⁾ 게오르기우스는 선택과 신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은폐된 신비의 부요함을 신

62) Inst., II, 5, 5 (OS 3, 303).

63) Inst., III, 24, 2 (OS 4, 412): “Ad haec ipsa quoque vocationis natura et dispensatio perspicue id demonstrat: quae non sola verbi praedicatione, sed et Spiritus illuminatione constat.”

64) Inst., III, 24, 14 (OS 4, 426): “...ut Dei vocationi fidei suae laudem adscriberent qui Evangelium amplexi fuerant”.

65)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조명되기 때문에, 타고난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장님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조명하지 않는 자들은 간과된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등등하게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며, 구별되는 것은 오직 완고함으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같은 마음을 가운데서 육신같은 마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실 때, 비록 성경이 그것은 교회 단독의 특권이라고 분명히 선언할지도라도, 이것은 전 인류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51. CO 8, 255). 이러한 견해를 가진 볼섹과의 논쟁의 결과로 최종판 「기독교 강요」에서는 선택과 신앙의 관계가 증보되었다.

66) Inst., III, 24, 3 (OS 4, 413): “Sed falso dicitur electionem tuunc esse demum efficacem postquam Evangelium amplexi sumus, sumunque inde vigorem sumere.”

약성경의 신앙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고 말한다.”⁶⁷⁾ 이에 칼빈은 바울의 말에 의지하여 대답한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한 기쁨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자들만 신앙으로 조명된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들의 특별 부르심이 부인될 수 없다.”⁶⁸⁾

개오르기우스와 피기우스는 둘 다 선택과 유기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와 의지에 관련시키고, 신앙과 불신앙의 근거를 인간의 의지에 둔다. 그들은 “양자의 은총의 참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의 자유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 선택되고 누가 유기되는지는 하나님 의 계획에 의존하지 않는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 전자의 상태나 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다른 사람들 은 믿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상의 선택 혹은 그의 비밀 스런 계획에서 발생하는 차이점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⁶⁹⁾ 그러나 칼빈은 복음의 보편성과 신앙의 특수성을 대조시킨다. 칼빈에 의하면, 결정적인 논점은 복음의 보편적이고 구원적인 성격이 아니라 주님이 그의 계획 속에서 모두를 위해 똑같이 구원을 예정하셨느냐라는 것이다.⁷⁰⁾ 이 질문에 관하여 성경이

67)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58 (CO 8, 344).

68) Ibid. (CO 8, 344): “Atqui, longe aliam Pauli mentem ostendunt verba, quorum summa est, illuminatos esse in fidem, qui secundum aeternum Dei beneplacitum ad vitam praedestinati fuerant. Quin tunc specialis fuerit quorundam vocatio, negari non potest.”

69) Ibid., 55 (CO 8, 259): “Fingunt ambo, in libertate nostra positum esse, ut se quisque in adoptionis gratiam inserat. Neque hoc ex Dei consilio pendere, quin nam electi sint vel reprobati: sed singulos sibi utramvis fortunam suo arbitrio statuere. Quod alii credunt evangelio, alii increduli manent, non ex gratuita Dei electione, vel ex arcano eius consilio, sed ex privata tantum cuiusque voluntate provenire hoc discrimen.”

70) Ibid., 103 (CO 8, 298): “an dominus aeterno suo consilio communem illic omnibus salutem destinaverit.”

대답한다. 즉, 보편적으로 나타난 복음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⁷¹⁾ 복음의 선포는 선택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올지라도, 이런 선포는 악인들과 함께 공유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택의 완전한 증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치신다.⁷²⁾

선택은 신앙보다 앞서지만, 선택은 신앙으로 배워진다⁷³⁾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이 선택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데 더 적합한 수단은 없다. 성령이 선택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증거하셔서 영원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폭풍과 사탄의 유혹과 육신의 모든 동요에도 굴하지 않게 하신다. 왜냐하면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의 기슴속에서 발견하고 구원이 우리에게 확신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신앙에 분명히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붙잡고, 똑같은 신앙의 인도를 받아 이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볼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 위에 기초되고 복음의 약속 위에 의거하며, 신앙을 통해서 전달된다.”⁷⁴⁾ 신앙으로 선택을 인식할 수 있다는 칼빈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예정 교리가 사변적이 아니라 목회경험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유기에 관계된 구절들은 155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눈에 띄게 훨씬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새로운 교리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⁷⁵⁾ 특히 유기에 관한 내용이 확장된 것은 논

71) Ibid., 103-104 (CO 8, 298-299). Cf. L. F. Schulze, *Calvin's Reply to Pighius* (Potchefstroom: Pro Rege-Press, 1971), 105

72) Inst., III, 24, 1 (OS 4, 410): “Nam etsi Evangelii praedicatio ex fonte electionis scaturit, quia tamen reprobis etiam communis est, non esset per se solida illius probatio. Deus autem efficaciter electos suos docet ut ad fidem adducat”

73)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127 (CO 8, 318): “Prior quidem fide est electio, sed ex fide discitur.”

74)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56. (CO 8, 260).

75) Wendel, *CALVIN*, 269.

쟁의 결과이다. 예정 작정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유기에서 작정과 수단의 관계는 선택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대이다. 선택에서 하나님은 승인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조명하시지만, 유기에서는 거절하시고, 강팍하게 하시고, 눈멀게 하신다.⁷⁶⁾ 말하자면,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유기된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을 그의 성령으로 조명하시지만, 유기된 자들은 버리시고 은총에서 제외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둡게 하여 죄 속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사탄에게 넘겨주신다.⁷⁷⁾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악인들에게는 그의 영의 효과적인 역사를 허용하시지 않는다.⁷⁸⁾ 이처럼 선택의 표징에는 성령이 동반하며, 유기의 표징에는 성령이 동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과 유기의 이중예정이 달성된다.

외적인 부르심은 선택된 자들이나 유기된 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이지만, 그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⁷⁹⁾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써 영원한 계획에 의해 그들에게 예정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유기된 자들에 대해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신다. 유기된 자들이 예정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빼앗으시며, 어떤 때는 말씀의 선포에 의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키신다.⁸⁰⁾ 그러므로 말씀의 선포를 통한 외적 부르심은 그 자체가 유기된 자들의 마음

76) Cf. Comm. II Thessalonians 2:11 (OC 52, 204), quoted in F. H Klooster, *Calvin's Doctrine of Predestination*. (Grand Rapids, 1977), 81.

77) Ibid.; Inst., III, 21, 7 (OS 4, 379).

78) Inst., III, 24, 2 (OS 4, 412): "Atque etiam Deus, illustrandae gloriae suaee causa, Spiritus sui efficaciam ab illis subducit."

79) Inst., III, 24, 15 (OS 4, 427-428).

80) Inst., III, 24, 12 (OS 4, 423): "Quemadmodum sua erga electos vocatio-
nis efficacia, salutem, ad quam eos aeterno consilio destinarat, perficit Deus: ita sua
habet adversus reprobos iudicia, quibus consilium de illis suum exequatur. . . . ut in
finem suum perveniant, nunc audiendi verbi sui facultate privat."

을 강박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고자 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수수께끼로 싸서 보내심으로써 그들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고 더 심한 우둔에 빠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⁸¹⁾ “최고 심판자는 정죄하시고 그의 빛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자들을 어두운 상태에 버려두실 때 그의 예정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러한 효과에 관하여는 성경의 많은 증거들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증거들도 많이 있다. 성경에도 증거가 많다. 똑같은 설교가 백 명에게 선포될 때, 이십 명은 곧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거나 비웃거나 싫어한다.”⁸²⁾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박해질 경우, 거기에는 이중의 원인이 있다. “유기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의 악의와 부패한 마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 의 정당하고도 불가해한 판단에 의해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패 된 상태로 넘겨졌다는 것이 침가되어야 한다.”⁸³⁾ 칼빈은 마음이 강박 해짐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찾음으로써 인간의 책임성을 간파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유기의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이 같이 나타난다.

81) Inst., III, 24, 13 (OS 4, 425): “Neque hoc quoque controverti potest, quos Deus illuminatos non vult, illis doctrinam suam aenigmatibus involutam tradere: nequid inde proficiant, nisi ut in maiorem hebetudinem trudantur.”

82) Inst., III, 24, 12 (OS 4, 424): “Praedestinationi igitur suae viam facit summus ille arbiter, ubi quos semel reprobavit, lucis suaem communicatione orbatos deserit in caecitate. Alterius membra cum extant quotidiana documenta, tum multa in Scripturis continentur. Apud centum eadem fere habetur concio, viginti prompta fidei obedientia suscipiunt: alii vel nullius pensi habent, vel rident, vel explodunt, vel abominantur.:Cf. I. iv. 1; v. 8; III. xx. 14.

83) Inst., III, 24, 14 (OS 4, 426): “Quod igitur sibi patefacto Dei verbo non obtemperant reprobri, probe id in malitiam pravitatemque cordis eorum reiicietur, modo simul adiciatur, ideo in hanc pravitatem addictos quia iusto, sed inscrutabili Dei iudicio suscitati sunt, ad gloriam eius sua damnatione illustrandam.”

그러나 칼빈은 유기의 표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도록 경고한다.⁸⁴⁾ 하나님의 유기 작정이 분명히 개개인들과 관련될지라도, 칼빈은 그 유기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누가 분명히 유기된 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정에 관한 자세를 칼빈은 다음과 같이 신앙의 유의성과 관련시킨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불가해한 지혜를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누가 그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선택받았으며 또 누가 정죄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것을 조사할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지만”(롬 11:1-36) “이런 것은 우리 신앙에는 필요하지 않다.”⁸⁵⁾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였는지 결정하는 일이나, 또는 선택된 자들을 유기된 자들과 구분해 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만의 특권인데,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이니(딤후 2:19).”⁸⁶⁾ “그리고 인간의 경솔함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사건들에 의해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지를 경고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전히 벼려지고 희망없이 포기된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 그 좁은 길로 다시 부름을 받고, 남은 사람들을 앞에 서있는 것처럼 보여지던 자들이 흔히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눈만이 누가 마지막까지 견인할 자인지를 보실 수 있는데(마 24:13), 그것은 그 분만이 구원의 떠리이기 때문이다(히 2:10).”⁸⁷⁾ ⑩

84) Ibid. xiv. 51; xxii. 61 (MPL 45.1025, 1030; tr. NPNF V. 546f., 550), quoted in Inst., III, 23, 14 (OS 4, 409).

85) Inst.(1536), 59 (CO 1, 74): “Comprehendere quidem non possumus incomprehensibilem Dei sapientiam, nec eam excutere nostrum est ut nobis constet, qui aeterno eius consilio electi, qui reprobati sint (Rom. 11). Verum neque id fidei nostrae opus est...”

86) Ibid., 60 (CO 1, 75): “Caeterum, de aliis certo censere an sint ex ecclesia, nec ne, ac electos a reprobis discernere, non nostrum est. Haec enim singularis est Dei praerogativa, nosse qui sui sint, ut testatur Paulus (2 Tim. 2).”

렇게 칼빈은 유기의 표징이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오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5. 결론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이 신론 중심도 그리스도 중심도 아니고 성령 중심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리라는 가설 위에서 그 주제를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칼빈에게 예정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이다. 여기에서 칼빈은 그의 논객들이 하나님의 의지의 우위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의지의 우위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유기에서는 공의가 나타난다는 점을 그는 강조하고, 하나님의 예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예정의 근거로서의 예지를 거부한다. 선택의 근거는 그리스도이다. 칼빈의 예정론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일정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신 후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정하셨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은 선택의 대상인 인간 속에 선택의 어떠한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호로 견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정의 표징은 성령의 사역과 관련되는데, 선택된 자들에게는 성령의 동반으로, 유기된 자들에게는 비동반으로 예정 작정이 시행된다. 유기의 표징은 선택의 표징과 상반되고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효적인 내적 부르심이 선택

87) Ibid. (CO 1, 75): "Et ne hominum temeritas eo se proxiperet, ipso quotidie eventu admonemur, quam longe sensum nostrum superent iudicia Domini. Nam et qui perditissimi videbantur et plane deplorati fuerant, eius bonitate in viam revocantur, et qui prae aliis stare videbantur, saepe corrunt. Solius Dei oculi vident, qui in finem usque sint perseveraturi (Matth. 24), quod demum est salutis caput (Matth. 16)."

의 표징이라면, 내적 부르심의 비허용은 유기의 표징이다. 성령의 조명에 의한 신앙이 선택의 결과이며 표징인 반면, 성령의 비동반으로 인한 불신앙은 유기의 결과이며 표징이다. 그러나 유기의 표징이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용되는 것을 칼빈은 경계한다.

이처럼 칼빈의 예정론 안에서 예정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정이 시행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의 사역이 동시에 강조된 이 교리는 삼위일체(론)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칼빈의 예정론이 삼위일체(론)적이라는 것은, 예정이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작성과 시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각 위의 사역으로 분리는 되지 않을지라도 구별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강조된다는 의미이다. 이 점은 많은 칼빈 연구가들이 칼빈의 예정론에서 주목하지 못한 측면이다.